아버지

이석종 영감은 딸을 찾아올 적마다 소사실에서 한바탕 익살을 부리고 간다. 모두 자기 지난 얘기였으나 거기엔 물론 남의 일화를 주워다 붙일 때도 많다. 그런대로 재미는 있기 때문에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었다는 라디오 뉴스에 우울들 하던 판이라, 외투 앞을 풀어헤친 영감의 작달막한 모습이 나타나자, 입도 벌어지기 전에 벌써들 웃고 반겼다. 영감은 권하는 대로 스프링이 빠진 의자에 털썩 걸터앉아, 소시에 팔도 강산을 유람했을 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배는 고프구 머물 곳은 없구 그것 참 난처했지."

석종 영감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희끗희끗한 걸너더분한 수염을 쓰다듬는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일어난다. 영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속절없이 오늘은 노숙이구나 허는 판인데 마침 개울가에서 어떤 마누라 하나가 대여섯 살쯤 되는 아이놈 하나를 데리구 빨래를 허구 있구먼."

하고 눈을 껌벅껌벅한다. 그리 우습지도 않건만 듣는 쪽은 공연히 또

껄껄거린다.

"난 창졸간에 손을 들어 냅다 그 아이놈의 따귀를 붙였지."

"허——."

"그랬드니 그 에미가 막 핏대를 세우구 뎀비지 않겠나? 아 여보 마누라, 내 말 좀 들으시우. 뭐 어쩌구 어째! 왜 괜히 남의 애헌테 손찌검하는 거야! 아아니 이 마누라가. 그래 내 말 좀 들으래니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아는 게 있는데 아까부터 이애 관상을 보니 참 걸출이구료. 대장감이야. 그런데 음성이 어떤가 궁금해서 들어보려구 부지중 손을 댔소구료."

"능청스럽게."

"암 그러니깐 방정맞은 에미가, 아유—— 그러세요? 그래 음성은 어떠합지요? 허구 반색을 하는구먼."

"하하……."

"그눔 우는 소리 우렁차군. 음성두 대장감이요. 아들 하나 잘 두었소. 마누라가 기뻐서 아이구 선생님, 저의 집이 바루 저긴데 좀 들어가시죠. 뭐 폐스럽게 나는 점잖게 사양했지."

"아아주."

"아이 섭섭하게 어떻게 그냥 가세요. 약주라도 한 잔 잡수시구 가세요. 마누라가 성화로 졸라서, 그제야 난 못 이기는 체하고 따라갔지."

영감은 숭물스럽게 또 눈을 껌벅껌벅한다.

"그날 저녁을 잘 대접받고 뜨뜨읏한 방에서 푸근히 쉬고 일어나니깐 밤새 일기가 변해서, 비가 쏟아지고 있구먼. 주인이 선생님 우중에 떠나실 것 무엇 있으십니까? 개일 때까지 며칠이구 쉬어 가십쇼. 그러기에 정처없이 떠난 길에 모우(冒雨)허구까지 갈 필요는 물론 없으니 또 못 이기는 체하고 눌어붙었지."

"배짱이시구먼요."

"목침을 베구 잠을 청허는데 밖이 소요해지더니 주인이 조심조심

얼굴을 내밀고 선생님 소문을 듣고 동리 아낙네가 여쭤 볼 말씀이 있다고 왔는데요. 네, 괴로우시더라두 잠깐 봐 주십쇼, 허지 않겠나?"

"아하하……."

또 웃음소리가 터진다.

"참 진퇴유곡이지, 그러나 겉으로는 아주 거드름을 부리며 불러들였지. 서른 고개를 넘을까말까한 여인네가 들어와 공손히 고개를 숙인다."

"큰일났구먼요."

하고 또 깔깔댄다.

"보니깐 머리를 빤질하게 빗고 차림새도 말쑥해. 급한 병자가 있어 왔다구 주인헌테 들었는데, 요 여편네가 제 남편이나 자식이 앓을 것 같으면 머리 빗구 옷 갈아입구 올 겨를 없었으리 허구, 마구 오오 시부모가 편찮어 오셨구료? 허구 말을 건네니 고것이 눈이 똥그래지두먼."

영감은 빙그레 웃었다.

"그날 남풍이 심히 불었는데 그 여편네 꼴을 보니 뒤는 말짱한데 앞은 왼통 젖었어, 옳다…… 북쪽에서 왔구나 짐작이 가서 또 무턱대구 임자는 북쪽에서 사니 허구 숭물스럽게 손가락을 집는 척하구 오늘 중이루 남쪽 서씨 약을 쓰시오 했지. 명판났다구 야단들이었대, 이히히……."

"아하하…… 흐흐……."

급사의 전갈로 아버지를 만나러 나오던 규히는 복도까지 흘러 나오는 웃음소리에 흠칫하고 발을 멈추었다. 굴욕과 수치와 애정이 엉켜서 무거운 덩어리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눈물이 핑 돈다.

예순다섯 살 된 늙은 어린애 같은 아버지가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슬펐다.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허긴 어느 좌석에서라도 아버지의 이야기가 활기를 가지고 만좌를 이끌어 가는 데 만족과 자랑을 느낀 적도 있었다. 어린 추억에 남아 있는 아버지…….

항상 주기를 띤 불콰한 얼굴, 호탕스러운 웃음소리, 재기 있는 농담—— 그가 입을 열고 한 마디를 던지면 언제나 반향이 있었다. 거기엔 물론 스스럽지 않은 친밀감과 함께 약간의 모멸이 섞여는 있었으나 그것을 깨닫기에는 그녀는 너무나 어렸다.

아니, 성인(成人)보다도 날카로운 어린 직각으로 그것을 깨달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애(自愛)란 가장 강한 본능의 하나이므로 그 한 가지 형상(形像)으로서 자기 육친인 아버지의 결점을 정시하지 않고 그를 찬미할 여유를 찾으려고 힘썼는지 모를 일이다.

이석종 영감은 이조판서(吏曹判書) 이범직의 둘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호탈하고 영일하고 재기가 비상하였으나, 웬일인지 이 판서는 자손 층하가 심해 맏아들과 막내아들만 애지중지하고 그를 괄시하였다. 일세의 석학(碩學)인 이 판서는 혹 둘째 아들의 후일을 짐작할 수 있어서 그 때부터 그를 괘씸해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석종 영감은 어려서부터 조롱적인 방종한 기질과 관대한 기질과 간헐적인 진지성이 교착되어 정신의 평형(平衡)을 지닐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없는 사람이었다.

틈만 있으면 행랑에 가서 비부들과 실없이 떠들고 상소리를 배워와서는 단정한 형과 아우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열두 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어머니가 중태에 빠지자 어린 마음에 산삼을 구해 오리라 하고 서울 주변의 산을 헤맨 일이 있었다. 진종일 산비탈에서 미끄러졌다 바위에 부딪쳤다 하며 나뭇가지에 옷은 찢어지고 손발에는 회를 치고 기진 맥진 돌아가니 어머니의 임종이 가까워 온 집안이 뒤집혀지고 있었다. 그 수선스러운 분위기에 눈이 휘둥그래진 그의 꼴을 보고 당숙 하나가 기가 막혀

"너 어딜 갔나 이제 오니?"

하고 눈을 부릅뜨는데 석종 영감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씨익 웃어버렸다. 나이 열두 살이나 되는 놈이 부모가 위중한 것도 모르고 온종일 쏘질러 나섰다고 호령을 들었다. 어머니 드리려고 산삼 구하러 간

줄은 이내 아무도 몰라주었다.

열여섯 살 때 윤 승지 막내딸과 성례하였는데 이삼 년 전에 작고한 그의 교전비 쌍가마 어멈 말을 들으면 새애기씨 교전비가 다섯에, 열두 금침, 치마저고리가 몇십 죽, 장롱 세간이 몇 바리, 심지어 다듬잇돌 홍두깨 장독까지 실어 왔다고 신이야 넋이야 주워섬기는 것이나, 등 나간 적삼에 코 긴 고무신을 신고 있는 마누라를 보면, 이석종 영감이 상류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조차 신화적 불신(神話的 不信)으로 듣고 있는 터이라, 모두 빙그레 웃고 마는 것이었다. 그러나 쌍가마 어멈 말에는 풍도 섞여 있을는지는 모르나 엉뚱한 거짓말은 결코 아니다.

오종종하게 늙어 꼬부라진 마누라를 보면 재물 붙을 곳은 약에 쓸래야 찾을 수 없고 궁이 아주 배어 보이나, 역시 쌍가마 어멈 말을 들으면 모란송이같이 탐스러운 작은아씨였다고 한다.

다만 일생을 의탁한 남편이 이석종 영감이고 보니 그에 휩쓸려 밑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따름이다.

철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규히가 그 아버지의 행위 중에 부끄러움과 원망스러움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었다.

한 가지는 물론 음주(飮酒)였으나 또 한 가지는 치사스러운 허세(虛勢)였다. 석종 영감은 난주가에 흔히 있는 조야한 쾌활(快活)에 대한 기호(嗜好)를 가지고 있었다.

수삼 일 전에도 딸을 찾아와서 젊은 처녀아이들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며 떠든 일이 있다.

"내 친구 한 눔이 있는데 말야. 그눔이 술 한 말 뱃속에 넣구는 다녀두 지구는 못 다니는 작자야. 그 작자가 하루는 나헌테 놀러 왔단 말야. 밤이 이슥허두룩 치거니 마시거니 허구 나니 좀 취했던가 봐. 그 자리에 쓰러져 잤지. 죽은 듯이 한잠을 자구 나니 목이 타는 듯이 마르구먼. 해장을 허량으루 불두 켜지 않고 머리맡을 더듬어 베개 옆에 두었던 술사발을 움켜쥐고 주우욱 한숨에 들이키구 또 잠이 들었

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런 질색이, 물사발이 아니구 요강이었어. 이히히……."

"아하…… 오호……."

요란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지는데 홍당무가 된 규히는 슬쩍 그 자리를 피해 나갔다. 아버지가 술잔에 빠뜨려 버린 모든 재물 재능 명예 이성(理性)의 대가가 이런 굴욕과 수치였던가? 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짓밟히는 데 쾌감을 느낄까?

이럴 적마다 상처를 입은 자존심이 그의 효심(孝心)의 순결(純潔)에 얼룩을 지었다. 그러나 규히는

"그 아버지헌테 어쩌면 저런 딸이 생겼담. 얌전허구 효성스럽구 이쁘구. 닭이 봉을 났지."

동네에서 소문이 나도록 효성스러운 딸이었다. 사촌 오라비 원조로 천신만고 여학교를 나온 후 어떤 비료 회사 타이피스트로 들어가 현재는 그 가냘픈 손으로 세 식구 호구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석종 영감 때문에 머리 골치 앓던 조카들도 규히의 취직으로 께름은 허나마 한시름 잊었다.

석종 영감은 처음엔 그래도

"네게 짐을 실리다니."

하고 송구해 하였으나 요즘은 목이 마르면 딸의 사무실에까지 찾아와서 안타까운 돈푼을 졸라 간다.

아버지가 근무처에 찾아올 적마다 규히는 가슴이 내려앉는다. 오늘도 영감 행색이 기막히다. 야미장에서 중고나마 조촐한 구두를 사준 지가 일주일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버렸는지 다 떨어진 지까다비를 끌고 있다. 이 추위에 모자도 없고 목도리도 없고 걸너더분한 수염엔 입김을 서리고…… 젊은 마음에 소사들이 부끄러웠다. 국군 진주 이래 석 달 동안 부득이 금주했던 반동으로 더욱 정신을 잃은 영감이다.

규히가 '아버지'하고 밖으로 불러내니 영감은 떫은 것이나 핥는

것 같은 얼굴로 따라 나왔다. 뒷문 밖에서 마주섰다.

"얘 아침에 말헌 것 어떻게 됐지?"

영감은 눈을 꺼벅꺼벅했다. 친구가 하는 고물상에서 한구석 얻어 장사를 할 테니 밑천을 대어 달라고 하는데, 만 원만 있으면 오만 원 된다 하니 그러면 규히가 버는 돈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늘어놓는 말을 규히는 귀담아듣지도 않고 나왔던 것이다.

고물상이고 무어고 모든 계획이 술에 녹아 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까닭이다.

그러나 하루 종일 실없는 소리를 하여 가며 소사실에 눌어붙은 아버지가 부끄럽게도 하거니와, 그렇게도 애달피 먹고 싶어하는 것이 가련하기도 하였다.

규히는 사면을 휘익 한번 돌아보고 재빨리 아버지 외투 호주머니에 백 원 지전 몇 장을 넣어 주었다. 영감은 요구액이 얼마였던 것조차 잊었는지 몇 장 지전에 눈이 번쩍한 모양이다. 못내 겸연쩍어 하며

"얘 네 옷이 너무 얇지 않니? 감기 들라."

하고 손가락으로 눈위에 코를 핑 풀고 골목길로 빠져 나갔다.

대포 몇 잔에 거나하게 취한 영감은 청계천가를 헐렁헐렁 걸어가다가, 저쪽으로부터 오던 검정 낙타 외투에 밤색 마카오 양복을 입은 늘씬한 중년 신사와 마주쳤다. 큰집 조카 규성이였다.

"아 너 규성이구나?"

××무역 회사 사장인 규성이는 이 말썽꾸러기 둘째 삼촌과 노상에서 마주치는 것이 질색이다. 체면 손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 둘째아버지, 어딜 가셔요?"

"나 말이냐? 길을 가는 중이지."

술이 들어간 영감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이히…… 웃었다.

규성이는 별안간 무슨 생각이 났는지 표정을 갈고

"둘째아버지, 오랜만이니 약주나 한 잔 대접해 드리죠."

천만 뜻밖의 이런 말을 한다.

"대접이라니, 난 술을 사발루는 마셔두 대접으론 마시지 않는데."

영감은 자못 만족해 하며 조카 뒤를 따라갔다.

다옥동 뒷골목 어느 목롯집에 들어가자 규성이는 춥다는 핑계로 밖에서 보이지 않는 온돌방으로 들어가 주안을 주문하고

"날이 별안간 추워졌는데 별고들 없으신지요?"

하고 다시 한훤(寒暄)을 한다.

"신탄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저의 집에서 갖다 때세요."

단순한 영감은 조카가 기특했다.

"수다 식구에 큰 살림 해 나가기두 힘드는데 내 걱정꺼지야 바랄 수 있겠나만 좀 융통해 주면 고맙지."

"뭘 한집안에서. 김장은 어떡허셨죠?"

"온 김장 같은 소리두."

"그럼 좀 갖다 잡수세요."

주안이 들어왔다. 따끈하게 데운 술을 마시고 너비아니 한 점을 집어먹으니 영감은 눈이 슬슬 풀어지는 것 같다.

"허 간밤에 송장꿈을 꾸었더니 네게 고기를 얻어먹는구나. 이히……."

"온 별말씀을……."

규성이는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지 식욕이 조금도 없는 모양이다. 바로 앉았다 고쳐 앉았다 초조해 하다가 마침내 영감 옆에 다가앉고 음성을 낮추었다.

"그렇지 않어두 둘째아버지를 뵈오루 가려 허던 참니다."

"응?"

"다른 게 아니라 둘째아버지두 아시다시피 여름에 남하 못한 까닭에 어찌 혼이 났는지요. 이번엔 남보다 먼저 좀 피해 볼까 합니다."

"무어?"

영감은 들었던 잔을 놓고

"그럼 사태가 그렇게 긴박허단 말이냐?"

규성이는 당황히

"아녜요. 별걱정 없습니다만 만일을 염려해서 그러는 것이죠. 더구나 회사두 타 버렸으니 어디 부산 가서 일을 좀 해 보려구요."

"그래서."

"가족들은 며칠 후 트럭으로 보내기루 했습니다만……."

"그럼 됐지 뭐."

"저어기 저어."

규성이는 거북한 듯 한참 망설이다가

"좀 여쭙기 거북합니다만 둘째아버지께서두 혹 아실는지 모릅니다만 지가 수삭 전에 들어앉힌 계집이 있는데요."

"응."

"그것두 제 사람이구 보니 그냥 두구 갈 수는 없구먼요."

"데리구 가면 그만 아니냐?"

"그런데 그 애비가 있어요."

"그럼 애비두 데리구 가렴, 장인 아니냐?"

"온 별말씀을."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영감이 재촉한다.

"그 애비가 지금 풍병으루 누워 있는데요. 의지라구는 딸 하나밖에 없어서요. 여태 시중들던 할멈은 시굴루 가 버리구요. 그래서 애비를 맡는 사람을 구허기 전엔 안 가겠다구 재랠이구먼요."

"그래서."

영감이 조카를 정시한다. 규성이는 삼촌의 시선을 피하며

"둘째아버지께선 노인이시구, 또 별루 반동 지목 받으실 조건두 없으시구 허시니깐 최악의 경우에 그놈들이 또 서울에 들어온다 허

드라두 봉변허실 염려가 없으실 듯허셔서……."

규성이는 말끝을 흐렸다.

"그래."

"죄송헙니다만 제 별가루 합솔허셔서 그자를 좀 돌봐 주시면 지내실 만큼은 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 둘째아버지께서두 아시는 자니깐 스스럽지두 않으시겠구."

"내가 아는 자라니. 누구냐?"

"전에 강릉 댁에 있던 명필성이에요."

"무어!"

일순간이었다. 작달만한 노인은 있는 힘을 다 들여 소리를 지르며 잔을 던지고 일어섰다.

"괘 괘씸헌 눔 같으니!"

그는 격정에 말을 이을 수가 없어 한참 허덕거리다가

"그 그래 아무리 기집에 눈이 뒤집어졌기루 그래 네 종첩년의 아범 시중을 내게 들게 헐 작정이냐? 이 후레자식 같으니."

불불 떨리는 수염과 주먹이, 부릅뜬 눈이, 허덕거리는 숨결이, 그의 격분을 말하고 남음이 있었다. 떨어질 대로 떨어는 졌을망정, 선친 이 판서의 오기(傲氣)가 역시 그에게도 전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안이벙벙해 서 있는 조카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없이 술집을 나왔다.

찬바람을 마구 쐬고 가는 취기가 깬 주름진 뺨에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명필성이는 석종 영감의 삼촌 댁 종이었다.

아무리 아무리 타락은 하였을망정 조카의 첩의 애비 시중을…….

영감은 또 한 번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다.

"웬 게장인가?"

저녁상을 받은 영감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옆집 호연 어머니가 피난가면서 주고 갑디다."

"흐응."

영감은 입맛이 획 달아났다.

"피난을…… 흥."

피난 바람에 잘 얻어먹기는 하나 불안하기 짝이 없다. 길거리로 나가면 온통 짐 짐 짐 피난짐 투성이다. 둘만 모여도 피난 이야기, 그러려니 해서 그런지 사람이 부쩍 준 것 같다. 영감이 늘 소일을 하러 가는 복덕방 송 영감도 내종을 바라고 용인으로 소개하고, 고물상을 열고 있는 김 첨지를 찾아가니 역시 문이 닫혔다.

규히도 사장 이하 사원이 대부분 소개하여 집에서 놀고 있다. 석종 영감은 점점 초조해졌다.

"우리, 이 통에 젤 좋은 집 한 채 골라잡아 살자. 내 사주에 예순다섯이면 운이 터진다던데. 이히……."

하고 허세는 부렸으나 기운이 없다.

더욱이 규히가 잠이 들었을 때는 몇 번이고 들여다보곤 한다. 워낙 말수 없는 딸이었으나 수심에 싸여 보이는 요즘의 그를 보면 가슴이 뭉클한다.

한참 살 나이다. 꽃다운 시절이다. 측은했다.

간밤에는 누가 그랬는지 불온한 벽보를 붙였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다고 몇 집 안 남은 동리집 영감이 찾아와서 수군거렸다. 먼 포성이 들릴 적도 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퇴거 명령이 내렸다느니, 수일내로 서울은 내놓을 작정이니, 들리는 소리마다 기가 막혔다. 석종 영감은 농담을 거둬 버렸다. 체소한 몸이 더욱 초라해졌다. 피난을 가려니 돈도 없고 서울 태생이니 바라고 갈 시골붙이도 없었다.

어떡하나?

이날 낮잠을 자면서 석종 영감은 정말 지척에서 은은한 포성을 들

은 것 같았다. 선뜻하고 일어나 보니 규히가 술상을 보고 있다.

"웬 술이냐?"

하고 물으니

"퇴직금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규히는 나직히 대답하고 외면을 했다. 그 가냘픈 새하얀 목——순간 석종 영감의 가슴에 자욱히 서려 있던 상념이 한 가지 결단으로 굳어 갔다.

이튿날 석종 영감은 규성을 찾았다. 규성이는 큰집 가족을 먼저 소개시키고 또 서울로 되돌아와 있었다. 아직 떠나지 못한 것을 보면 첩의 애비를 맡길 사람을 얻지 못한 모양이다. 병도 풍병이고 보니 대소변 시중까지 해야 하겠고, 말하자면 생명을 내걸고 맡아야 할 테니 그리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저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 찌불찌불 눈물을 흘리고 있는 판에 석종 영감이 찾아갔으니,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것만큼 좋아들 하였다.

석종 영감이 의식적으로 굴욕을 무릅쓴 것은 아마도 이것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러나 극진히 술대접을 받고 규성이의 집을 나온 영감의 얼굴은 핼쓱은 했으나 무거운 짐이나 부린 듯 가뿐했다. 집에 돌아가자 그는 문간에서부터

"됐어 됐어."

하고 너털웃음을 쳤다.

그는 마누라와 딸을 불러 놓고 조카 규성이의 호의로 자기들도 소개를 하게 된 것, 그러나 차 관계로 한번에는 떠나지 못하고 우선 규성이편에 규히가 먼저 떠나고, 늙은 내외는 다음 사원들 가는 편에 뒤를 좇도록 한 것 등을 늘어놓고 떠들어대었다. 그날 밤으로 많지 않은 짐이 꾸려지고 출발만 기다리게 되었다.

규히의 창백하던 얼굴에 화기가 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역시 불안했다. 많은 식구 같으면 모르되 몇 가지

안 되는 짐에 단 두 사람 더 태울 수 없다는 것은 박절하다기보다 좀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무엇을 직각했다. 자기를 위하여 꾸며진 허위를…… 그러나 스물한 살의 왕성한 생명력이 그 추궁을 허락지 않았다. 오히려 애써 이기적인 자기 기만 속에 자신의 양심의 짐을 덜려 하였다.

출발날이 왔다.

석종 영감 부녀는 큰길까지 나가서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인생의 외부에 버려진 채 자기 의지를 가진 일이 없는 어머니는 영감 말대로 곧 딸의 뒤를 좇아갈 줄만 알고 먼저 가는 딸에게 '어서 자리를 잡아 놓으라'고 부탁까지 하였다. '네' 하고 대답한 규히는 문득 자기가 무서웠다. '어머니, 어머니' 껴안고 울고만 싶었다.

간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아직도 부실부실 내려 초라한 두 사람의 머리와 어깨에 떨어져 쌓인다.

영감은 아까부터 눈을 꺼벅거리고 있다. 수염이 떨리고 입에 문 파이프가 떨렸다. 손바닥을 몇 번이나 마주 부빈다.

규히는 머플러를 깊이 쓰고 말없이 서 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슬픔과 사랑을 넘쳐 흐르도록 안고 이별을 하는 이 마당에 구구한 말이 무슨 필요가 있으랴?

햇솜 같은 눈송이가 눈앞에 아롱아롱 내리쏟는다. 피난 짐을 만재한 트럭이 몇 대나 질주해 지나간다.

드디어 규성이의 차가 달려와서 머물렀다.

규히는 머플러를 쓴 채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입속에서 가만히 뇌인다.

"그럼 먼저 가겠어요. 곧 뒤이어 오세요."

끝까지 고집하려는 자기 기만…… 그녀는 자기 말이 너무나 공허한 데 스스로 놀랐다.

아버지는 대답을 앉고 딸의 가난한 짐을 차에 올려 싣는다. 차에 올라탄 규히의 눈물 어린 눈에 아버지의 초라한 그 모습의 윤곽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진 지까다비——

"오——근 라이人."

차가 움직인다. 석종 영감은 몇 걸음 차 뒤를 따랐다. 그러나 트럭이 속력을 내자, 쫓는 것을 단념하고 발을 멈추었다. 그의 입에서 파이프가 떨어졌다.

차가 크게 커브를 돌아 그 초라한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려 할 때 영감은 갑자기 무엇을 붙들려고나 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달음질을 쳤다. 그러나 수보를 옮기지 못하고 눈위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순간 규히는 충격적으로 트럭에서 뛰어내리려 하였다.

"아이 떨어져요. 위험해."

누구인지 깜짝 놀라며 그를 잽싸게 잡아당겼다. 규히는 소름이 쭉 끼치는 것 같아 짐 위에 기대 앉았다. 그녀를 잡아당긴 것은 옆에 탄 사람뿐이 아니고 더욱 강력한 힘—— 생명에의 집착이었을는지도 모른다.

일순 후 눈위에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은 영원이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은은한 포성이 계속해 울려 왔다.

(1951. 10.)